

최근에 연예인 이혼 문제와 부부 스외평 조직 적발 등으로 바람직한 부부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부부간의 성문제와 같은 사적 영역의 것을 사회적으로 다룬다는 것이 어디까지 가능할지 어려운 면이 있다. 90년대 말부터 우리나라는 급증하는 이혼율로 인해 가족해체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에 직면하였다. 이혼율 세계 1위 기록을 세우며 증가하던 이혼율이 2003년을 정점으로 다소 감소세로 돌아섰다는 통계가 발표되어 다행이긴 하지만 여전히 이혼율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혼율의 급격한 증가에 대한 사회적 파장을 우려한 보건복지부에서 2004년 건강가정기본법을 제정하고 각 지자체별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하여 가정문제에 정부가 개입하기에 이르렀다. 이사업이 지금은 여성가족부로 이관되어 추진되고 있다.

이혼의 원인을 사례별로 살펴보면 성격차이, 배우자의 외도, 경제적 이유 등이 주된 사유가 되고 있으나, 사회적으로 보면 급격한 사회변화와 불안정한 고용환경, 퇴폐향락문화 등이 가정의 위기를 부추긴다고 할 수 있다.

이제는 가족에 대한 개념 자체를 재정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가정의 핵심은 부부다. 부부관계가 원만하고 좋으면 가정이 화목하고, 부부관계가 원만하지



불자 세상보기

한 주영
불교여성개발원 사무국장

바람직한 부부

못하고 불안정하면 가정이 편안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부부 사이의 관계를 돈독하게 할 것인가? 그것은 무엇보다 서로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신뢰는 성실성, 배려 등 일상에서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서 쌓인다. 부부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을 흔히 성격차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평소에서의 의사소통이나 서로에 대한 이해와 배려 부족의 결과이다. 설인이 된 남녀가 함께 만났을 때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그러므로 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좋지 않은 방향으로 나아가지 않을 때 중요한 분기점이 된다. 다름을 다룰 때에는 있는 그대로 보기가 중요하며 상호 이해와 존중 속에서 각자의 개성을 존중하되 부족한 점은 배우고 보충하는 자세로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하다보면 다름을 통해 보다 성숙하고 완성된 인격을 쌓아가는 데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다름에 대해 자신의 기준으로 평가하고 자신이 익숙한 방식으로 교정하려고 할 때 문제는 심각해진다. 불교 수행의 출발은 있는 그대로 보기에 있다. 사서체의 고정성은 우리 인간의 고통이 무엇인

지를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다. 부부 사이에 뭔가 문제가 있다면 누구를 탓하기 전에 먼저 무엇이 문제인지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부부가 함께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가지고 대화를 함으로써 서로 무엇이 문제인지를 공유하는 것에서부터 실마리는 풀린다고 본다.

부처님께서 재가자에게 말씀하신 오계를 보면 그 가운데 불사음(不邪淫)이 있다. 아무리 돈독한 부부관계라도 이 불사음의 계가 깨지면 오랫동안 쌓인 신뢰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가 있고, 서로에게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 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서 자신의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한다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순간적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 행복을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필요하다.

불교에서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의 하나가 '인연'이라는 말이다. 이 세상의 수많은 남성과 여성 가운데 왜 하필이면 지금 이 사람과 만나서 혼인을 하게 되었을까?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그래도 깊은 인연이 있어서 우리가 부부의 연을 맺은 것만은 사실일 것이다. 그러므로 지금의 인연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서로 보듬어 주고 인연을 완성해 가는데 좋은 도반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가정을 일군 재가불자의 바람직한 부부관계라고 생각한다.

불자의 눈

수계법회 '제대로 된 틀' 기대

불자와 비불자를 구분하는 것대는 무엇일까? 수계(受戒)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고 행하는 불자의 삶은 살생, 도둑질, 음행, 거짓말, 음주 등 다섯 가지를 경계하는 계율(戒律)을 기본으로 한다. 비구 비구니 우바이 우바세는 부처님의 '명령'인 계를 받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이다. 재가 불자들이 받아 지니는 기본 계가 바로 5계다. 5계를 받은 사람은 불자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예비불자이거나 비불자다.

불자의 표상인 5계, 조계종은 아직 이 5계와 관련된 의례와 계목(戒目)의 항목들을 통일화 하지 못했다. 수계 법회의 절차와 계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의 구분은 물론 계목의 문구도 각각이다. 특히 계목을 한문에서 한글로 번역하는 문제와 관련 표현법을 두고 의견이 분분하다.

종교는 허례가 아닌 위엄 있는 의식을 통해 그 가르침의 본질을 더욱 깊게 하는 측면이 강하다. 수계법회는 성불이라는 궁극에 이르기 위해 경계해야 할 기본 사항들을 묵숨처럼 지키겠다고 서약하는 의식인 만큼 매우 엄숙하고 정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 사찰마다 각각의 형태로 수계법회를 치른다거나 의식마다 차이가 나는 계목으로 지계의 삶을 다짐한다면 종교적 연속과 승교합이 결어지는 것은 물론 수계자의 신심도 약해질 것이다.

최근 조계종 교무원이 '재가불자 수계법회 정립을 위한 워크숍'을 열고 일차적으로 계목의 통일을 위한 안을 내놓았다 고 한다. 반갑고 중요한 일이다. 이 워크숍을 통해 불자로서의 삶, 사부대중의 일원으로서의 근본을 견고하게 다지는 수계법회가 제대로 된 틀을 갖추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종립대 관리 원점에서 점검을

조계종 종립대학인 동국대가 긴 안개의 터널에 갇혀 있는 형국이다. 학교 뿐 아니라 나라를 발칵 뒤집어 놓은 '신정 아 사건'의 출발점이 되어버린 이사회가 어쩔쩔 책임인 받기 하는 사이, 학교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는 숨을 죽였고 학내 구성원들의 원성은 커져서 쌓였다. 이사들의 퇴진을 요구하는 교계의 목소리들이 높은 가운데 급기야 학생들도 '책임과 책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시점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과연 오늘의 동국대 상황에 대해, 누가 책임져야하고 누가 새로운 비전을 내세울 것인가? 사면에 연루된 인사들이 책임지고 그렇지 않은 인사들이 새로운 비전을 만든다는 '단순공식'은 이제 성립되지 않는다. 보다 근원적인데서 문제를 풀지 않으면 '뺨뺨'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근원은 어디인가? 종립대학의 근원은 종단이다. 조계종이다. 현재 종단과 동국대를 잇는 통로는 '종립학교관리위원회(종관위)'다. 그러나 알다시피 종관위는 지극히 정치적인 기구가 되고 말았다. 이것이 동국대 불행의 출발점일지도 모른다. 지금 동국대를 '관리'하는 종단의 입장은 근원적인 데서부터 변해야 한다. 백년대계를 위해 선지식들이 일군 대학을 정치와 권력의 도구로 삼아서는 안 된다. 정치와 권력으로부터 자유로운, 설립이념을 구현하는데 전력할 수 있는 새로운 기구를 구성해 진정한 종립대학을 가꿔야 한다.

'종교자유' 칼럼

34. 대통령의 종교 박광서 (서강대 물리학과 교수)

"사회통합 위해 종교문화적 편협성 벗어나야"

국가 최고지도자의 의식구조는 정치권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대통령이 종교색깔을 분명히 하는 경우 더 이상 대통령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1993년 2월 문민정부의 첫 개각에서 개신교 13명, 가톨릭 4명에 비해 불교는 겨우 2명을 끼워 넣어 생색만 내는 편중 인사를 함으로써 일생을 통해 일관되고 소신 있게 '내 종교만 소중하다'는 김영삼 대통령의 종교편향은 본색을 드러냈다.

이런 분위기가 속에서 당시 황산성 환경부장관은 청사 내 식당에서 근무시간에 예배 또는 기도모임을 가졌는가 하면, 법당을 폐쇄하고 불상을 뒷산에 버린 '17사단 해설사건'으로 문책해 임되었던 국방부 장관 권영해 장로는 그 후 안기부장에 임명되어 '국방부 예배사건'을 주도 하더니, 청와대 대변인 윤여준 장로는 "시간이 허락하는 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볼 것"이라며 장로 대통령에서 전도사 대통령으로까지 만들 배정임을 드러내기도 했다.

1995년 4월 개신교인 김숙희 교육부 장관은 '고인·대인 겸정고시 일자가 부활절과 겹친다'는 기독교계의 민원을 접수한 고종처리위원장 김광일 장로의 권고에 따라 시험 일자를 5월



육군교회 예배에 참석한 이승만 대통령 내외.

5일로 변경하였다. 이미 국민에게 발표한 공식 시험일마저 기독교 단체들의 압력에 굴복하여, 시험 12일 전에, 그것도 온 국민이 일 년 중 하루 아이들과 함께 쉬게 되어 있는 어린이날로 변경하다니. 어처구니없게도 그 해 초파일(5월 7일)에 수십 가지의 국가자격시험이 실시되었다는 사실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가.

1998년 12월 총무처 장관 김한규 장로는 공무원 임용시험을 평일에 치른다고 발표하고, 인터넷에서 "고위공직에 임용된 것은 복음사역을 위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이며, 기독교인들의 숙원사업인 성수주일을 관철시키겠다"며 의기양양했다고 한다. '선교도구로 전락한 김영삼 정권' 당시 공직

자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문제였지만, 결국 최종 책임은 대통령 자신에게 있다. 국민들은 순진하게도 "나의 종교가 소중한 만큼 남의 종교도 소중하다"는 그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다.

기독교 국가를 꿈꾸던 이승만 대통령도 자신의 종교를 드러내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다. 1948년 5월 31일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임시의 장으로 추대된 그는 "대한민국 회의를 열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라고 운을 댄 뒤, "우리가 다 성심으로 일어서서 하나님께 감사드릴 터인데 이윤영 의원(목사) 나오셔서 기도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라며 식순에도 없는 행보를 부러다녔다. 이어진 개회사에서 감사할 대상 중 첫째로 '하나님'을 꼽아 온 국민을 이리동질하게 했다. 어느 분의 지적처럼 비신자로서 '한국기독교역사 시대'에 2등 국민으로 낙오자가 되는 모멸감을 느끼게 해준 순간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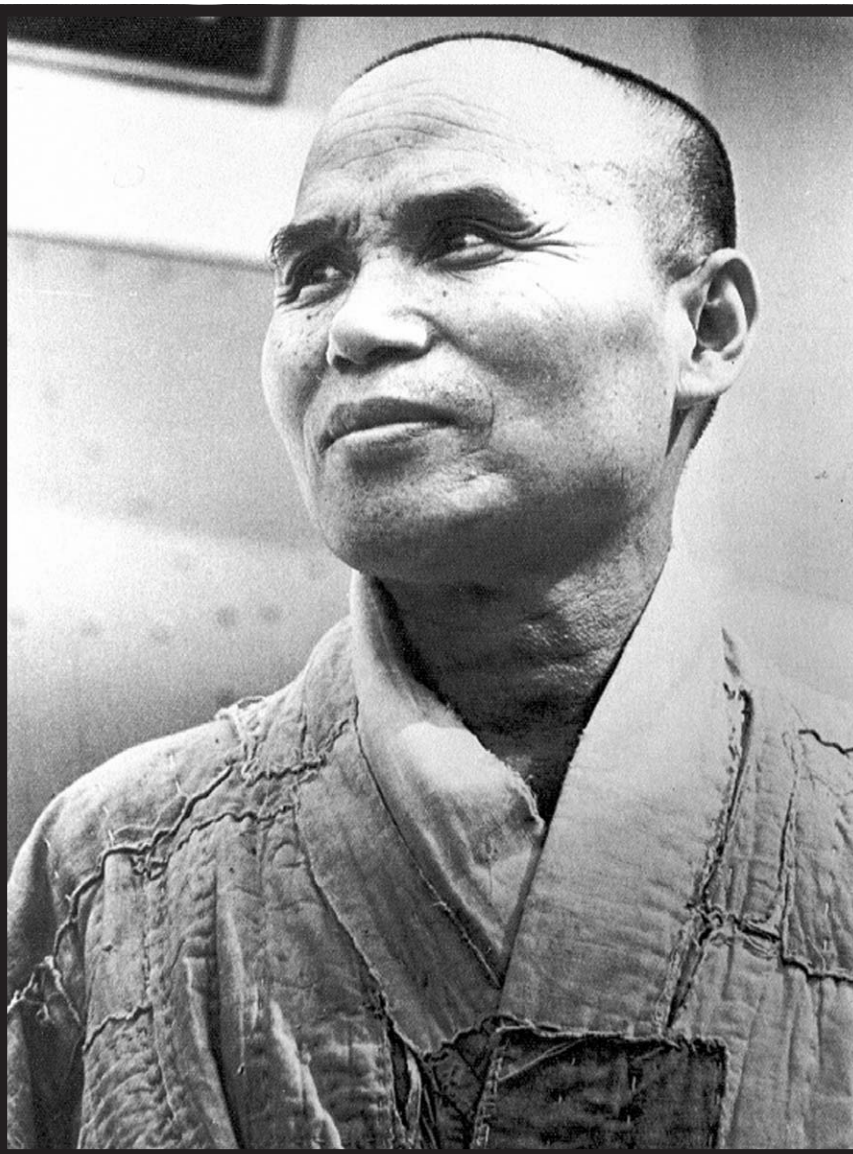
한편 근세제도 도입(1968년), 부처님오신날 공휴일 제정(1975년), 불교방송 개국(1990년)이 군독(1948년 창군 시), 크리스마스(1949년 공휴일 규정), 기독교 방송(1954년)에 비해 각각 20년, 26년, 36년이나 뒤쳐진 것도 건국 초기부터 친기독교로 일관한 파행적 정책 때문이었음은 두말할 나위 없다.

대통령의 종교가 문제가 된 것은 주로 이승만·김영삼 두 대통령 시절이었지만, 김대중·대통령도 종교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은 것 같다.

전두환씨에 의해 미국으로 출국 당했던 1981년도에 그는 하버드 대학에서 강연을 한 적이 있다. 당시 MIT 연구원이었던 필자도 참석했는데, 1980년 광주항쟁 직전 정치인들이 대중연설 등을 통해 모처럼 '정치적 봄'을 만끽하던 수개월 동안 유독 김대중씨가 강연할 때마다 '예수형님'이란 말을 쓰는 것을 의아해했고, '육체적·정치적 생명을 로마교황청이나 미국 기독교 세력에 의탁하고도 필요 이상으로 예수를 파는 것 아니냐'고 직접 묻고 싶던 차였다. 그런데 하버드 대학의 어느 여교수가 먼저 "기독교 전통이 아닌 한국에서 정치지도자들이 기독교를 앞세우며 이용하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질문을 하지 않겠는가. 갑작스런 질문에 엉겁결에 해방신학을 끌어들이며 그럴싸하게 답했지만, 공생한 변명밖에 들리지 않았다.

가톨릭 신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개신교 신자인 이회호 여사의 영향 아래 청와대와 내각, 그리고 행정부와 군·경 등의 고위 임명직에 불교인을 소외시키고 기독교 일색으로 채워왔다는 비난도 많았다. 각종 위원회에 기독교 인사한 석 목사 포함이 50~60%인데 반해 불교 인사는 10%에도 못 미치는 등 국민정부가 문민정부 때보다 더 심하다는 보도도 있었다. 국무총리 지명자였던 장상체는 국회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하나님의 참된 도구가 되겠다"며 종교색 짙은 발언을 하여 구설수에 오르기도 했다.

다종교 사회인 한국에서 대통령이 종교적으로 편협한 경우 사회적 갈등의 뿌리가 깊어지게 마련이다. 종교문화적 편협성이 없는 통합형 대통령의 선출을 기대해 본다.



성철스님 열반 14주기 추모 학술회의

성철스님의 일상의례와 선 : 삶 속에서 내 마음을 밝히다

2007년은 봉암사결사가 시작된 지 60주년 되는 해입니다. 성철스님은 청담스님, 자운스님 등과 함께 "부처님 법대로 살자"는 기치 아래 1947년 문경 봉암사에서 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한국전쟁 때문에 결사가 오래 지속되지는 못했지만 현재 조계종의 의례를 확립시킨 중요한 의의를 갖습니다. 특히 봉암사결사에서는 총림의 예법을 따라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문을 강조하였는데 이후 백련암을 대표하는 의례로 정형화되었습니다. 이에 봉암사결사 60주년을 맞이하고 성철스님 열반 14주기를 맞이하여 능엄주 독송과 백팔예참문의 연원과 의미를 찾아보고자 합니다. 두 의례가 총림의 의례 중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는지, 성철스님이 이런 의례를 강조하신 이유는 무엇인지를 살펴봅니다. 아울러 매일매일 반복적으로 진행되는 이런 수행이 실제로 우리 마음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는 자리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하여 봉암사결사의 의례가 성철스님의 가르침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는 모습과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21세기에 부합하는 새로운 결사의 일단을 모색해 봅니다.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원택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서울 중로구 수송동 58 두산위브빌리는 1232호
전화 02) 2198-5372 / 팩스 02) 2198-5374 / 이메일 academy@songchol.net
※ 주차 공간이 넉넉하지 않습니다. 될 수 있으면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십시오.

● 일시 | 2007년 11월 21일(수요일) 오후 1시
● 장소 |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
● 주최 | 대한불교조계종 백련불교문화재단
● 주관 | 백련불교문화재단 부설 성철선사상연구회
● 후원 | 문화관광부

【 일정 】
1:00~1:20 개회
발제 - 원택스님 (백련불교문화재단 이사장)
1:20~2:00 초청발표 성철스님 불탄법어 독송의 정신치유 효과
발표 - 박진생 (박진생 신경정신과 의원 원장)
2:00~3:00 제1발표 선종 총림 의례와 능엄주 독송
발표 - 석길암 (한국불교연구원 전임연구원)
3:00~4:00 제2발표 성철스님 일상 참법의 연원과 의미
발표 - 최원섭 (성철선사상연구회 연구원)
4:00~5:00 종합토론